

무주군, 한국 소비자 大賞

올해의 최고 행정 부문 대상 수상... 7차 산업화 추진 등 호평

무주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소비자 大賞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고 행정 부문 大賞(지역주인)을 위한 행정과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인물을 받았다.

한국소비자협회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협회와 대한민국 국회 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大賞(올해의 최고 인물, 행정, 브랜드, 기업, 제품 등 부문)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한국소비자협회컨설팅과 INGO-WGCA국제녹색인증실천소비자기관이 조사평가를 맡았다.

무주군은 공감행정을 바탕으로 6차 산업에 공존체 회복을 위한 무주만의 7차 산업화를 추진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지구환경보존과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무주반딧불축제 등을 통해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183개국 4만



무주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소비자 大賞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고 행정 부문 大賞을 받았다.

여 명 방문)을 통해 태권도성지로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로 확실히 각인시키는 등 국제교류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황정수 군수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올해의 최고 행정 부문 대상으로 거두게 돼 영광"이라며 "무주군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력이 지역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 외교활성화 방안 찾는다

태권도진흥재단, '국제 태권도 컨퍼런스' 내달 1일 열려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은 태권도 가치를 공유하고 태권도원의 외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태권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재단은 내달 1일 14시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태권도원을 활용한 태권도 외교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태권도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George Vitale(ITF) 대변인의 기조연설과 김중섭(前세종학당 재단 이사/現 경희대 국문과) 교수의 발표(주제: 태권도 세계화 방안)에 대한 재언) 등이 이어 스포츠·외교·문화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태권도원이 전 세계 태권도 교육·수련 및 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지이자, 태권도 가치 창출 및 확산을 통해 태권도 문화외교진흥의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장으로 재단 김성태 이사장을 비롯해 국제태권도학회 송종국 회장, 김동원(강동원주대학교) 교수, 최은규



'국제 태권도 컨퍼런스' 포스터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도 참가한다.

컨퍼런스 참가 희망자는 이달 30일까지 이메일(khjtkt@khu.ac.kr / rkwt4880@tpf.kr)을 통한 사전 예약이나 당일 선착순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실시

장수군은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28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일상속의 생활안전'을 주제로 복지도우미, 독거노인관리사, 이장, 부녀회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안전도우미를 양성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으로 생활안전, 소화기·화재 대비, 지진·태풍, 전문응급처치교육 등 다양한 재난 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과 예방 경각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실시했다.

군은 각종 자연 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빠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여름과 겨울 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율방재단 운영, 자재 확보 및 관리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건강도시 회복력 증진 포럼

무주군의 건강도시 회복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28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영상관실에서 개최됐다.

군이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이태현 부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관계자들과 무주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성대학교 김영 교수가 '건강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영향 요인'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 배성호 공민정책과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건축과 공민복지'에 대한 내용을, 류스 류재현 대표가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정책학회 변병설 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원과 자연지리연구원 정경연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2009년 건강도시(건강과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건강 향상이 목적) 기본계획을 수립한 무주군은 2011년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3년부터는 ▲간접흡연 예방사업과 ▲삼 예방, ▲고혈압 당뇨 로우, 건강하이 등 주민들의 실제적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영역을 추진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총력 대응

긴급 방역대책 수립... 거점소독장소 진안읍·성수면 선정 24시간 운영 등 조치

진안군은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진안군은 가금 480만수 사육 지역으로 동부권 최대 규모고, 진부장 지역의 차단방역 관문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역이다. 이에 진안군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장

소로 진안읍과 성수면 2개소를 선정, 24시간 운영으로 외부 유입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 방역 취약지역은 공동방제단 3개반을 투입하여 소독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농가 자율소독 강화를 위해 소독약 2,700kg 공급을 신속히 마치고, 무진장축협과 공조하여 축산농가에

생식회를 상시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으로 일일 예찰에 힘쓰고 있으며, 취약지역은 공수의를 동원하여 간이 키트검사 및 임상관찰 등 차단 방역 활동을 나섰다.

군 관계자는 "AI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청정진안 사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다함께 행복한 다문화 발표회' 성료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17년 다함께 행복한 다문화 발표회'를 열었다.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어린이합창단, 인형극, 결혼 이민자 중창단)의 1년 성과를 관내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들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결혼이주여성과 지역민들로 구성된 '밤 스토리 인형극단'의

다문화가족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홍분네 며느리'라는 창작 작품을 첫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결혼이민자녀 구성원 '소리마미 중창단'과 다문화자녀와 비다문화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물뿔쟁이마을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풍물, 퓨전, 솔로 등 다양한 공연과 합동 무대를 선보였다.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다문화가족과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어르신 운전차량 식별 스티커 보급 12월 1일부터

진안군은 28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안전을 위해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면 유리에 부착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차량' 식별 스티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10월말 기준 8,294명으로 그 중 자가운전 노인인구는 1,300여 명에 이른다. 진안군은 자가운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운전자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고 자기운전 노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르신 운전차량 식별 스티커 1,300매를 제작해 오는 12월 1일부터 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자가운전 노인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운전차량 식별 스티커 보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운기,

사륜 오토바이 및 농기계 등에도 스티커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스티커 보급으로 자가운전 노인들의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며 어르신 운전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본 운전자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